

# 개화기 일본인 간행 한국어 문법서에 대한 일고찰: 『韓語通』의 품사 설정과 문법 항목 기술을 중심으로\*

윤 영 민  
(연세대학교)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韓語通』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품사 설정 양상과 체계 및 문법 항목의 기술상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본서는 1904년 『校訂交隣須知』를 간행한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이하 마에마)가 1909년에 펴낸 한국어 문법서로 한국어 품사를 총 11개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서법(mood)’과 ‘태(voice)’의 개념과 설명을 부가하여 ‘오쓰키문법(大槻文法)’의 영향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문법서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存在詞’의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야마다문법(山田文法)’의 관점을 차용한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마에마는 1880년의 호세코 시게카쓰(寶迫繁勝) 및 마에마와 같은 해인 1905년의 다카히시 도오루(高橋亨), 야쿠시지 지로(藥師寺知龍) 등과는 달리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규명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근현대 한일문법학사에 나타난 양국어의 교섭을 구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본서의 품사 구분 경향과 문법 항목의 기술상에 보이는 내용적 분석을 병행하여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화기말, 20세기 초라고 하는 시기에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가 일본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일면을 파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재원(교육인적 자원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1-A00027).

주제어 : 개화기, 『韓語通』, 前間恭作, 품사 체계, 문법 항목

## 1. 들어가며

본고는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이하 마에마)의 『韓語通』(이하 본서)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품사 설정 양상과 체계 및 기술된 문법 항목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서는 1904년 『校訂交隣須知』를 낸 마에마가 1909년에 간행한 한국어 문법서로 유길준의 『大韓文典』과 해를 같이하여 나왔다. 김민수·고영근(2008)을 통하여 ‘오쓰키문법(大槪文法, 이하 오쓰키문법)’의 영향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문법서인 가운데 본서 외에도 1909년 국내에서 일본인에 의해 출판된 한국어 문법서는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이하 다카하시)의 『韓語文典』과 야쿠시지 지로(藥師寺知隴, 이하 야쿠시지)의 『文法註釈韓語研究法』 두 종(種)이 더 있다. 본서를 포함하여 이 세 한국어 문법서는 열거한 순서에 따라 각각 5월, 6월, 10월에 간행되었으며, 특히 『韓語文典』은 체언과 용언의 구분, 조동사와 감탄사의 설정 등에서 본서와 함께 오쓰키문법에 기반을 둔 입장의 견지가 적지 않다.

『文法註釈韓語研究法』 역시 오쓰키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김민수·고영근(2008)의 지적이 있으나 조사(助詞), 조동사를 포함하는 조사(助辭)<sup>1)</sup>와 조동사 범위 상에 나타난 견해 등을 보면 오히려 오쓰키문법의 영향을 받은 『韓語通』과 『韓語文典』을 정리하고 여기에 신문기자 및 한국어교사로서 습득한 자신의 실무적 지식을 첨가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880년 호세코 시게카쓰(寶迫繁勝, 이하 호세코)에 의해 메이지(明治, 이하 메이지)기 최초로 간행된 한국어 문법서인 『韓語入門』에서 호세코가 한국어 명사를 ‘남성성’, ‘여성성’, ‘중성’, ‘보통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거나 ‘participle’을 ‘분사(分詞)’로서 그대로 적용하며 인구어(印歐語)의 체계를

1) 조사(助辭)의 경우 조사(助詞)와 구별하고자 한자를 병기하겠다.

한국어 문법에 도입하고자 한 일련의 관점과 비교하면 본서의 한국어 문법관은 1909년까지의 근 30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메이지 말기 일본어 문법 체계에 나타난 적지 않은 과도기적 성향이 산견된다. 본론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겠으나 본서는 한국어 품사를 총 11개로 나누었고 ‘서법(mood)’과 ‘태(voice)’를 통해 오쓰키의 절충문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存在詞’의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야마다문법(山田文法, 이하 야마다문법)’의 관점 역시 차용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개화기 일본인들이 언어적, 학문적 측면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체계화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근현대 한국어 문법의 확립 과정에 미친 일본어 문법과 그 영향을 생각하였을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근현대 한일문법학사에 나타난 양국어의 교섭을 구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본서의 품사 구분 경향과 문법 항목의 기술상에 나타난 내용적 분석을 병행하여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화기말<sup>2)</sup> 20세기 초 일본인의 관점에서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일면을 파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한국어 문법서에 대한 사적 연구는 자료 자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자료 간 비교와 대조, 교육사 및 교재사의 측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관여한 한국어 문법서 및 학습서의 고찰은 문법관과 한일어휘의 양상, 자료의 의의 구명 등의 측면에서의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金敏洙(1960), 사이토 아케미(齊藤明美(2006), 이하 사이토), 鄭世桓(2010)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金敏洙(1960)는 본서의 서지와 구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문법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더한 것으로 동사의 활용을 동사 어간의 말음(末音)에

2) 본 연구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를 개화기로 보고자 한다.

의해 나누었다는 점, ‘態(voice)’를 ‘相’이라고 표현하고 ‘所相’, ‘勢相’, ‘使役相’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는 점, 조동사와 어미를 구별하였으며, 조동사를 독립된 품사로 기술하였다는 점,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형을 ‘法’이라고 칭하고 그 종류를 세분하였다는 점의 여섯 가지로 본서의 한국어 문법 체계화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였다.

사이토(2006)는 본서의 출판 경위와 체제를 살펴보고 어휘 및 표기 측면에 나타난 특징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마에마가 메이지 37년인 1904년에 간행된 『校訂交隣須知』의 저자라는 점에 착목하여 본서와 『交隣須知』의 한일 양국어 어휘를 비교, 대조하고 20세기 초 한국어의 음운 및 표기의 양상을 살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본서의 일본어가 메이지 말기의 새로운 일본어를 반영하였다는 점과 학습서로서 한국어의 문법적인 측면만이 아닌 회화서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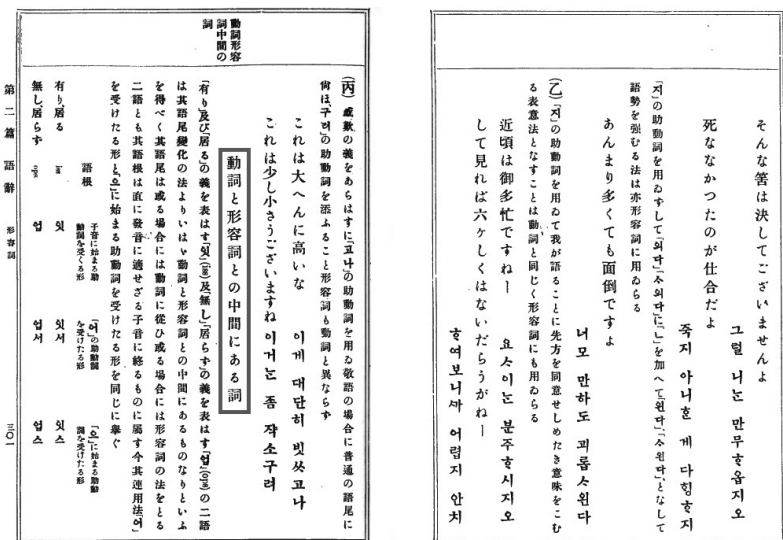
鄭世桓(2010)은 본서를 고찰한 가급적 최근의 연구 가운데 하나로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괄하였으며 문법 기술에서 나타난 오쓰키문법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이다. 이와 함께 문법 항목과 그 설명이 집중되어 출현하기 시작하는 ‘動詞’ 부분을 중심으로 마에마의 한국어 동사 기술 양상과 활용상에 나타난 한국어 문법 형태소의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이 외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964))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74)) 등을 본서의 일본 내 연구 성과로 들 수 있으나 이 둘 모두 근현대 초반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 및 마에마의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다룬 성격에 가깝고 본서와 관련하여서는 그 구성과 서지적인 체계의 소개 및 이후 간행된 한국어 문법서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어의 역사적인 연구 결과’라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 Ⅲ. 『韓語通』의 고찰

#### 1. 품사의 체계

우선 본서의 품사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에 나타난 한국어의 품사는 ‘名詞’, ‘數詞’, ‘互爾乎波’,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의 여덟 개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기술되고 있는 품사는 ‘感動詞’와 ‘助動詞’를 설정하여 목차상의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동사와 형용사의 중간에 있는 품사’<sup>3)</sup>라고 하여 ‘있다, 없다’를 ‘存在詞’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sup>4)</sup> 이를 포함하면 마에마는 한국어의 품사를 11품사로 나누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韓語通』의 ‘存在詞’ 개념 기술 부분

이와 같은 경향은 본서에 이어 한 달 후에 간행된 다카하시의 『韓語文典』

3) 본서 p.301. 원문은 ‘動詞と形容詞との中間にある詞’이다.

4) 단, 본서에서는 ‘存在詞’와 같이 직접적인 품사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서도 유사하다. 목차상으로는 한국어의 품사를 ‘名詞’, ‘代名詞’, ‘數詞’, ‘形容詞’, ‘動詞’, ‘助動詞’, ‘副詞’, ‘接續詞’, ‘感歎詞’, ‘助詞’의 열 개로 분류하였으나, 본문을 통해 ‘形容動詞’와 ‘存在詞’가 언급됨으로써 한국어 품사를 12개의 구성으로 담고 있다. 『韓語文典』의 ‘形容動詞’는 예로 든 ‘입부어진다’, ‘苦로우어진다’<sup>5)</sup> 등과 같이 형용사에 조동사「なる」가 접속하는 일본어의 양상을 적용한 것으로 형용사의 ‘상태의 변화’를 동작성으로 본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다카하시가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에 일본어 문법을 적용하려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傍證이기도 하다.

한편, 다카하시와는 달리 마에마는 한국어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다는 전제 하에 접근하고 있다. 품사를 ‘어사(語辭)’로 표현한 그는 본서에서 ‘어사의 분류(語辭の分類)’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第二篇 語辭

### 語辭の分類

語辭の分類法として我文法家に體言用言助辭など云ふ語を用ゐることあり之は日本語の場合には或は便利なる分類法なるやも知れされとも朝鮮語にありては此大別は實際適用し難きものあり之れ實に日本語と朝鮮語とか語辭の上に於て相異せる最も著しき特徴とす蓋し日本語は之を朝鮮語に比するときは其語辭が皆獨立するの傾向あり即ち所謂體言助辭などいふものは更なり用言に於ても「活用」によりて一旦獨立の形を備へたる上に於て助辭等に連接せらるるものなれども朝鮮語にありては八品詞中の重なる名詞動詞形容詞は更なり副詞、亓爾波助動詞等は其大部個々獨立せしめて他の詞に密着し強て各個の原形を求むれば所謂語根なるものを見出すに過ぎず而して亓爾波、助動詞其自身に於ても其添加すべき語の語根の發音如何によりて同様の意義を表はさん爲に其發音に適合する格別の亓爾波助動詞の存する事實あり(p.29-31, 이하 생략, 밑줄은 필자)<sup>6)</sup>

5) 『韓語文典』 p.63. ‘입부어진다’, ‘苦로우어진다’에 대응시킨 일본어 원문은 각각 ‘美シクナル’, ‘苦シクナル’이다(밑줄은 필자).

6) 한국어 번역문은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다.

<일본의 문법가들은 체언, 용언, 조사(助辭)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일본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가 편리할지 모르지만, 한국어에는 그 대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일본어의 품사가 독립적인 반면 한국어는 8품사 중 (일본어와) 겹치는 명사, 동사, 형용사는 물론 독립하지 않는 부사, 조사, 조동사 등은 다른 말에 밀접하게 접속되고 조사, 조동사 또한 첨가되는(연결되는) 말의 어근이 어떤 발음이나에 따라 (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그의 이와 같은 시각은 ‘形容動詞’를 설정하고 ‘한국어 문법서도 일본어 문법서와 동일하게 이를 10품사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간단명료하다는 언급과 함께’, 오쓰키문법에서 사용된 ‘體言’과 ‘用言’을 도입하여 일본어 품사 체계를 원용한 다카하시와 비교하면 한일 양국어가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선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韓語文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第二編 體言

十品詞

韓語の文典も日本文典と同じく、之を十品詞に分類して説明するを以て最も簡明なりとす。即ち名詞、代名詞、數詞、形容詞、動詞、助動詞、副詞、接續詞、感歎詞、助詞の十種なり。(p.15)

<한국어 문법서 역시 일본어 문법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십 품사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간단명료하다. 즉(십 품사란),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조동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의 열 종류 되겠다.>

그러나 마에마의 이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한국어 문법 체계가 그의 독자적인 관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예 역시 적지않다. ‘亘爾乎波’와 ‘助動詞’를 통해 나타난 오쓰키문법의 영향도 그러하지만, ‘있다’와 ‘없다’에 대하여 ‘동사와 형용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품사’라고 정의한 ‘存在詞’ 개념 도입 또한 한국어 문법 체계에 일본어 문법관을 적용한 일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存在詞’는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 이하 야마다)가 설정한 것으로 「有る・居る(있다)」, 「無い・いない(없다)」의 동사, 형용사의 형태적



여기에서 ‘數基’는 수관형사 뒤에 올 수 있는 의존명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년’, ‘월’, ‘일’, ‘째’, ‘말(斗)’, ‘푼(分)’, ‘진(錢)’, ‘량(兩)’ 등과 같은 예가 제시되어있다.

‘代名詞’는 크게 ‘人代名詞’, ‘指示代名詞’, ‘疑問代名詞’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人代名詞’는 1인칭과 2인칭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는데, 3인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第三人稱には一人稱二人稱に於ける如き一定の代名詞なくすべて名詞の上に指示代名詞を冠して其義を言ひ表はす(p.126)

<3인칭은 1인칭, 2인칭과 같이 일정한 대명사 표현은 없으며 명사 앞에 지시대명사를 겹쳐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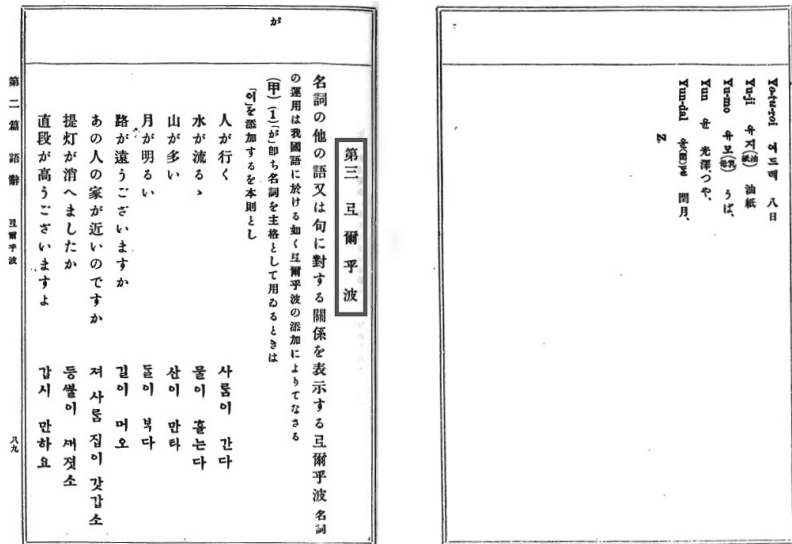
또한, ‘指示代名詞’에서는 ‘こ’, ‘そ’, ‘あ’와 같이 근칭인 ‘이’, 중칭인 ‘그’, 타칭인 ‘저’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부정칭 ‘어느’에 대한 ‘ど’는 ‘疑問代名詞’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마에마가 본서의 품사별 어휘 분류를 일본어의 관점이 아닌 한국어의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한 하나의 예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본어의 연체사인 ‘この’, ‘その’, ‘あの’를 한국어의 ‘이’, ‘그’, ‘저’와 대응시키며 ‘指示代名詞’의 범위에서 기술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부사 ‘왜’와 관형사 ‘몇’을 한국어의 ‘疑問代名詞’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과 이에 대응시킨 일본어 ‘何故’와 ‘いくつ’가 서양 문법의 영향으로 이미 일본어에서 ‘副詞’와 ‘代名詞’로 규정되어있었음을 생각하면 한국어 ‘왜’와 ‘몇’을 ‘疑問代名詞’로 보고 있는 마에마의 품사관은 ‘왜’와 ‘몇’이 가지는 의미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어서 조사와 용언류 가운데 조사를 먼저 살펴보면, 본서에서는 한국어의 조사를 ‘第三 豆爾乎波’를 통해 총 24종으로 들고 있다. 다만, ‘끼리’와 같이 현대 한국어 품사 규정<sup>7)</sup>과 차이를 보이는 예도 있었으며, ‘와/과/하고’와 대응시킨 ‘と’에서 한국어의 ‘하고’를 ‘する+て’와 같이 형태적인 측면으로 제시

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사’이다.

한 예도 나타나고 있었다. ‘격’에 대한 언급은 ‘주격’, ‘목적격’, ‘역(役)격’의 세 가지이며 나머지 조사의 격은 설정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마에마가 한국어 조사의 분류를 ‘격’, ‘기능’, ‘사용 양상’, ‘의미’ 등과 같이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격’을 제외하고 필자가 언급한 ‘기능’, ‘사용 양상’, ‘의미’는 각각 ‘격조사의 문장 내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함’, ‘어떠한 장면에서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함’, ‘한국어 조사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에 해당하는 일본어와 대응시켜 설명함’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다.

한국어 조사의 기술에 나타난 설명상의 특기사항을 들여보면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된 ‘주격’에서는 ‘이/가’를 들고 일본어 주격 조사 ‘が’와 대응시켰으며, ‘목적격’에서는 ‘을/를’을 들고 일본어 목적격 조사 ‘を’와 대응시켰다. 격조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한 ‘역격’은 수단과 방법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으)로’를 들고 일본어의 ‘で’와 더불어 이중조사 형태의 ‘にて, もて’를 함께 대응시킨 예도 보인다.



〈그림 3〉『韓語通』‘互爾乎波’ 도입부(p.89)

앞서 잠시 기술하였듯이 ‘주격’, ‘목적격’, ‘역격’을 제외하면 한국어 조사의 분류는 ‘기능’과 ‘사용 양상’, ‘의미’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살펴본 결과 본서의 ‘互爾乎波’는 그 범위가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소들도 다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조사와 조사류, 부사 및 활용 어미와 함께 접사 성분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의 용법에 있어서도 적절한 구분과 기능 항목에 대한 세분화가 적어도 본서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능’에서는 ‘소속’으로 규정한 한국어 ‘의/에’에 대하여 일본어 소유격 조사 ‘の’를 들었다. 또한, ‘공자말씀(孔子の言)’, ‘빛사람(船の人)’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사이시옷(ㅅ)’ 첨가를 통해 ‘の’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연도 덧붙이고 있다. 문법론적 관점에서 마에마가 한국어의 사이시옷이 형태표지로서 ‘之’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례<sup>8)</sup>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담/보다/보다가’를 일본어의 ‘より’에 대응시키고 ‘비교’의 용법으로 들고 있다.

‘사용 양상’은 필자의 구분으로는 총 여섯 가지였는데, 그 항목은 ‘시, 장소, 물건’으로 명사를 관련지을 때의 ‘에/에’(に), ‘사람에 걸릴 때’의 ‘에게/씩/더러/흔티’(に・へ), “움직임이 보이는 장소”로서 명사를 사용할 때의 ‘(에)서’(にて・で), “움직임이 일어나는 출처”로서 명사를 사용할 때의 ‘(에)서/(으)로서’(より), ‘사물이 시작되는 곳을 나타낼 때’의 ‘부터/(俗)버텀’(より), “のみ”의 뜻을 설명어로 사용하는 명사에 붙는 경우의 ‘뿐’(のみ)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어서 ‘의미’로 나누어 본 한국어 조사의 예이다. ‘의미’는 본서의 조사 분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열 두 가지 용법으로 세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어의 ‘と’에 한국어의 ‘와/과/하고’를 대응하여 ‘とともに’의 의미로 그 쓰임을 언급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하고’의 부연 설명

8) 물론 ‘사이시옷(ㅅ)’이 ‘의/의(之)’의 의미로서 활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이시옷(ㅅ)’이 가지는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어의 ‘사이시옷(ㅅ)’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을 일본어의 ‘する’의 연용형인 ‘し’에 ‘て’를 결합한 ‘して’로 기술하고 있는 예도 보인다. 단, 이는 ‘하고’에 대한 의미상의 설명이라기보다는 형태상의 활용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있다’와 ‘없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태 중심 활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어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어의 ‘처럼’은 ‘のやうに’의 의미로 설명하였으며, 종조사 ‘-아/-야’에 대해서는 ‘呼び掛け’라는 설명을 달아 ‘-よ’와 같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의미’로 분류할 수 있는 본고의 한국어 조사로는 ‘도’(も), ‘만’(のみ), ‘곳’(さへ), ‘끼리’(間に), ‘마다/(俗)마당’(毎), ‘씩’(ずつ), ‘씩지/(俗)씩지/까정/찌정’(まで), ‘만/만치/만큼’(だけ), ‘되로’(の通り)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표 1> 韓語通의 한국어 조사

순번	분류	설명 <sup>9)</sup>	항목	해당 한국어	설명상의 특기사항
1	격	주격	が	이/가	
2	격	목적격	を	을/를	
3	기능	소속	の	의/에	공자말씀(孔子の言), 빛사람(船の人)와 같이 ‘스’ 첨가를 통해 「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
4	격	역(役)격	にて・も て・で	(으)로	
5	의미	「とともに」의 의미	と	와/과/하고	‘하고’를 일본어의 「して」와 관련지어 설명
6	사용 양상	시, 장소, ‘물건’으로 명사를 관련지을 때	に	에/에	
7	사용 양상	사람에 걸릴 때	に・へ	에게/씩/ 더러/한테	① 존칭, 낮춤의 ‘대우법’ 을 함께 설명 ② 출처 및 근원의 「から」, 「によりて」를 함께 설명

9) 설명부분의 원문은 일본어이며 표 안의 내용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순번	분류	설명	항목	해당 한국어	설명상의 특기사항
8	사용 양상	‘움직임이 보이는 장소’로서 명사를 사용할 때	にて・で	(에)서	
9	사용 양상	‘움직임이 일어나는 출처’로서 명사를 사용할 때	より	(에)서/(으)로서	「から」를 함께 제시
10	기능	비교	よりも	보담/보다/보다 가	
11	의미	似寄り	のやうに	처럼	「の如く」, 「の通りに」 를 함께 제시
12	의미	呼び掛け	よ	~아/~야	종조사
13	의미	「も」, 「もまた」의 의미	も	도	
14	의미	「のみ」, 「ばかり」, 「之に限り」의 의미	のみ	만	
15	의미	-	さへ	곳	
16	의미	「同士で」, 「の間だけで」의 의미	間に	끼리	
17	의미	「毎に」	毎	마다/(俗)마당	「度(たび)に」를 함께 제시
18	의미	「づつ」의 의미	づ	씩	
19	사용 양상	사물이 시작되는 곳을 나타낼 때	より	부터/(俗)버팀	
20	의미	-	まで	까지/(俗)까지/ 까정/씨정	
21	의미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だけ	만/만치/만큼	
23	사용 양상	「のみ」의 뜻을 설명어로 사용하는 명사에 붙음	のみ	뿐	
24	의미	「の通り」, 「に隨(したが)つて」	の通り	되로	

이와 함께 <표 1>의 17번 항목에서 「毎」에 대한 일본어 예문 「毎日御逢(おあい)ですか」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보면 ‘날마다 보시오’로 되어있는데, 아직 「毎日(まいにち)」를 일본식 한자어 어휘 ‘매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일본어 「毎」가 ‘날마다’의 ‘마다’와 대응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외국어 번역에 있어서 입말(口語)로 번역하는 양상이 없지 않았던 당

시의 경향과도 연관을 지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화기 일본인이 간행한 한국어 학습서의 한일어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다시 고찰하여보고자 한다.

용언류인 ‘動詞’와 ‘形容詞’를 살펴보면 우선 ‘動詞’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고 일본어의 ‘する動詞’ 개념을 원용, 한자어 어간에 ‘-하다’를 접속시켜 동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形容詞’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 어미 ‘-다’에 대하여 일본어의 단정 조동사 「なり」와 유사하다는 기술을 통해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어미 ‘-다’가 다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가 일본어와는 달리 용언의 어미가 일본어의 조동사와는 다르다고 규정한 마에마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動詞’와 ‘形容詞’를 통해 한국어의 어미를 ‘助動詞’와 구분 짓고 독립된 품사로서 기능에 따라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필자의 관점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 ‘動詞’를 통해 나타난 한국어 문법 항목과 기술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에마는 ‘動詞’와 ‘形容詞’ 부분을 통해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動詞’의 아래 설명에서 일본어 동사의 구조를 ‘語基 또는 語根과 語尾’로, 한국어 동사의 구조를 ‘語根과 助動詞’로 보고 있는 그의 시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我國の動詞には活用と稱へ來れる語基ともいふへき形ありて「あ」、「い」、「う」、「え」などの母音を一旦語根に加へ之を言ひ据へたる上にて語尾を附するを常とすされども朝鮮語には語基の形なく助動詞は直ちに語根に付け加へらる(p.144)

<일본어 동사의 활용은 어기의 형태가 있고 ‘あ’, ‘い’, ‘う’, ‘え’ 등의 모음을 어근에 첨가하여 어미를 부속시키지만 한국어는 어기의 형태 없이 조동사가 바로 어근에 접속된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어근’의 존재만큼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形容詞’에서도 마찬가지로 ‘動詞’

를 통해 독립된 품사로 소개한 ‘助動詞’는 ‘동사+(ら)れる’, ‘동사+(さ)せる’, ‘형용사+そうだ’, ‘형용사+らしい’ 등과 같이 접속하는 품사와 조동사의 기능에 따라 용법을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既) 출판된 여러 일본어 문전에서 문법 항목을 기술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본서를 살펴본 결과 마에마가 언급한 한국어 문법 항목은 본서의 ‘動詞’ 구성과 ‘助動詞’의 기능을 통해 ‘범주’와 ‘기능’, ‘내용’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稱’은 기능에 따라 ‘尊稱’과 ‘直說法’을 다루고 있으며, ‘尊稱’에서는 ‘-시-’의 용법, 동사 자체의 존경·겸양표현, ‘直說法’에서는 보통체 어미 ‘-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時’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現在’, ‘過去’, ‘未來’의 세 가지로 나누어 다루었으며, ‘自動他動’에서는 한국어의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 주격 및 목적격 조사의 설명과 함께 각각의 쓰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오쓰키문법을 원용한 ‘相’과 ‘法’에서는 ‘相’을 통해 ‘피동(所相)’, ‘가능(勢相)’, ‘사역(使役相)’을 다루었으며, ‘法’은 ‘疑問法’, ‘命令法’, ‘連用法’, ‘接續法’, ‘連體法’, ‘插入法’, ‘不定法’, ‘表情法’의 여덟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본서의 ‘動詞’는 ‘稱’, ‘時’, ‘自動他動’, ‘相’, ‘法’, ‘否定語’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稱’과 ‘時’는 보통체 및 존경표현의 대우법과 동사의 시제를 다룬 부분이다. 특히 ‘稱’은 일본어의 ‘대우표현(待遇表現)’을 도입하여 한국어의 경어를 설명하고 있다. 대우표현과 관련하여서는 ‘表情法’에서 다시 다루고 있으나, 이는 ‘-다’에 대한 ‘-하니다’와 같이 주로 정중표현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稱’은 ‘먹(食)’에 대하여 ‘자시又잡습又잡습시(召上がる)’, ‘죽(死)’에 대하여 ‘도라가시(なくなれる)’, ‘니르(言ふ)’에 대한 ‘엿줍(申上ぐ)’, ‘듯(聞く)’에 대한 ‘듯줍(参る)’ 등과 같이 동사 자체의 ‘존경어’와 ‘겸양어’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의 대우표현과 관련하여 ‘어휘’와 ‘문체’를 따로 인식한 마에마의 관점을 볼 수 있다.

‘相’은 오쓰키문법에서 원용한 용어로 현대 문법 개념에서의 ‘aspect’가 아닌 ‘voice’에 가깝다. ‘相’은 『韓語文典』에서도 등장하는 용어로 본서에서는 ‘相’과 관련하여 피동인 ‘所相’, 가능인 ‘勢相’, 사역의 ‘使役相’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언어학 개념과 상이한 예로 ‘法’을 들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으나 본서에 등장하는 ‘法’은 ‘疑問法’, ‘命令法’, ‘連用法’, ‘接續法’, ‘連體法’, ‘插入法’, ‘不定法’, ‘表情法’의 8종인 가운데 ‘mood’와 ‘동사의 활용 방법’에 따른 형태’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法’의 기술상 특징을 들어보면 먼저 ‘疑問法’에서는 한국어의 ‘-느냐’, ‘-가(까?)’, ‘-느고’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命令法’에서는 ‘-어라’, ‘-거라’를 소개하는 동시에 일본어 청유형 조동사 「-(よ)う」에 해당하는 ‘-자’를 한국어에서는 명령법으로 분류하였다. ‘連用法’은 일본어의 ‘복합동사’ 조어 방식을 차용하였으나 예문은 「動詞+て」형을 들어 기술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 가운데 ‘接續法’에서는 ‘連用法’에 이어서 단문 형식의 문장을 복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동사의 체언 접속 방식에 대한 기술인 ‘連體法’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 ‘는’, ‘ㄴ’, ‘ㄹ’이 첨가되어 시제를 나타냄을 설명하였으며, ‘插入法’에서는 일본어 접속조사 ‘と’와 전문(傳聞, 이하 전문)의 조동사 ‘そうだ’를 대응하여 원인, 이유, 인용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한편, 마에마가 한국어 동사의 명사적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不定法’은 일본어의 형식명사 ‘こと’와 조동사 ‘ようだ’ 및 조사 ‘に’를 대응시켜서 ‘-것’, ‘-도록’, ‘-(하)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表情法’에서는 ‘敬語’와 ‘其他の表情法’으로 구분하고 각각 直說法(보통체) ‘다’에 대한 정중체 형태를 ‘命令法’, ‘疑問法’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과 일본어 조동사 「だろう」, 「ましよう」 및 종조사 「な」, 「よ」, 「ね」를 들어 ‘추측’, ‘권유’, ‘확인’, ‘감탄’, ‘동의’ 등으로 분류됨을 설명하였다. 본서의 ‘動詞’ 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韓語通』 ‘動詞’의 구성과 문법 항목

범주	기능	내용
稱	尊稱	‘시’의 용법, 동사 자체의 존경·겸양표현
	直說法	보통체 ‘-다’
時	現在	동사의 시제
	過去	
	未來	

범주	기능	내용
自動他動	-	자·타동사의 개념과 주격, 목적격 조사의 설명
相	所相	피동
	勢相	가능
	使役相	사역
法	疑問法	‘-느냐’, ‘-가(까?)’, ‘-느고’
	命令法	① ‘-어라’, ‘-거라’에 대해 기술, ② 일본어 청유형 조동사 「-(よ)う」에 해당하는 ‘-자’를 한국어에서는 명령법으로 분류함
	連用法	일본어의 ‘복합동사’ 조어방식을 차용하였으나 예문은 「動詞+て」형을 들어 기술
	接續法	한국어 문장의 복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술
	連體法	① 동사의 체언 접속에 대한 기술 ②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 각각 ‘느’, ‘느’, ‘르’이 첨가됨을 기술
	插入法	일본어 접속조사 「と」와 전문의 조동사 「そうだ」를 들어 원인, 이유, 인용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기술
	不定法	① 한국어 동사의 명사적 형태를 설명 ② 일본어의 형식명사 「こと」, 조동사 「ようだ」, 조사 「に」를 들어 ‘-것’, ‘-도록’, ‘-(하)러’를 중심으로 기술
	表情法	敬語
其他の表情法		일본어 조동사 「だらう」, 「ましよう」 및 종조사 「な」, 「よ」, 「ね」를 들어 한국어의 기타 표정법을 ‘추측’, ‘권유’, ‘확인’, ‘감탄’, ‘동의’ 등으로 분류함
否定語	-	① 한국어 부정서법 ‘-지 않-’, ‘안/아니’ 두 가지를 기술 ② 일본어의 부정조동사 「ない」에 해당하는 ‘-지 않-’과 함께 부사 ‘안’의 접속 형태를 한국어만의 부정표현 방식으로 설명

이 외에 ‘否定語’ 항목을 따로 두고 ‘안/아니’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打消しは「안」(안ㅎ)の形容詞によりて云ひ表はさる其用法は「안」を副

詞の形となしたる「아니」(口語には又「안」とも省略す)を動詞の前に置くこと「아니한다」の如くする法と動詞に助動詞「지」を添へたる上前法によりたる「ㅎ」(する)の動詞の打消を以て結ぶ法ともあり兩法何れも用ゐらる(p.204, 이하 생략, 밑줄은 필자)

<부정은 「안」을 부사 형태인 「아니」(입말에서는 「안」과 같이 생략한다)를 동사 앞에 덧붙으로써 「아니한다」와 같이 구현하는 방법과 동사에 조동사 「지」를 첨가하는 동시에 앞의 방법인 「ㅎ」(하다)의 동사 부정 형태로 결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사용된다.>

그런데 상기의 설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마에마가 ‘法’의 개념을 ‘용언+조동사’의 구조를 칭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더하여 조동사 「ない」를 첨가하는 일본어의 부정표현 방법과는 달리 한국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동사 ‘-지 않-’과 함께 부사인 ‘안/아니’가 동사 앞에 첨가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는 ‘안/아니’ 자체를 부정어로서 취급함으로써 일본어에서라면 서법으로 분류하였을 ‘否定’에 대하여 한국어에서는 ‘法’이 아닌 ‘語’라고 칭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대 한국어 문법의 시각에서 이와 같이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을 구분하였다는 것, 본서가 ‘法’에서 ‘不定法’을 두지 않다는 것으로 볼 때 마에마는 ‘부사’와 ‘동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否定’에 대하여 ‘-語’를 쓰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韓語通』의 품사 체계와 설정에 나타난 특징적인 사항과 ‘動詞’ 부분을 중심으로 독립된 품사로서 함께 기술된 ‘助動詞’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된 문법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서는 1904년 『校訂交隣須知』를 낸 마에마가 1909년에 간행한 한국어 문법서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메이지 말기 일본어의 어휘와 문법에 나타난 과도적인 양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 한 예로 ‘죽다(死)’에 대한 존경어로서 언급한 ‘도라가시다’의 ‘なくられる’는 ‘られる’가 피동의 기능과 함께 존경의 조

동사로서도 일반화되어진 양상을 볼 수 있는 현대 일본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서는 오쓰키문법과 야마다문법의 관점이 반영되어있으나 한국어 동사의 구조를 어간과 조동사의 구조로 보고 조동사를 어미와 구분하였으며, 부사와 조사 역시 어간의 말음에 따라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들어 일본어와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품사는 ‘名詞’, ‘數詞’, ‘ト爾乎波’,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動詞’, ‘存在詞’의 총 11종이며 ‘數詞’에서는 ‘흔두’, ‘두어’, ‘서너’와 같은 수관형사를 포함한 기술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代名詞’는 ‘人代名詞’, ‘指示代名詞’, ‘疑問代名詞’의 세 가지로 구분한 가운데 특히 일본어의 부정칭 ‘ト’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느’는 ‘疑問代名詞’에서 언급하였으며 일본어 연체사인 ‘この’, ‘その’, ‘あの’를 한국어의 ‘이’, ‘그’, ‘저’와 대응시켜 ‘指示代名詞’로 기술하였다. 이는 마에마가 일본어의 품사관과 한국어의 품사관에 차이를 둔 일례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어 부사 ‘何故’와 ‘いくつ’에 해당하는 ‘왜’, ‘몇’에 대하여 ‘疑問代名詞’로 규정한 것은 한국어 품사 분류를 의미기능적인 측면에서 행한 경향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서는 ‘動詞’와 ‘形容詞’ 부분에서 ‘助動詞’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助動詞’의 기능과 용법에 따라 시제, 서법, 태 등과 같은 문법 항목을 설명하는 구성을 띄고 있다. 한편, 본서에 사용된 ‘法’은 현대 언어학에서의 ‘mood’와 ‘동사에 조동사를 결합시키는 방법’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넓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서법에 속하는 ‘否定語’를 ‘法’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한국어의 ‘안/아니’를 부정문을 만드는 하나의 부사로 취급하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다만,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을 구분하였으며 ‘法’에서 ‘不定法’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는 ‘부사’와 ‘동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否定語’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일본어의 대우표현 범주에 드는 ‘稱’과 ‘敬語’를 구분하여 본서에서 ‘존경표현’과 ‘정중표현’으로 구성한 것은 저자인 마에마의 현대적인 문법 관념을 볼 수 있는 일례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는 본서와 함께 같은 해 일본인이 간행한 한국어 문법서인 『韓語文典』과 『文法註釋韓語研究法』과의 비교와 대조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이 문법서들 역시 오쓰키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이와 같은 평가가 어떠한 부분에서 관련되어있으며, 다른 일본어 문법의 영향은 없는지 등과 같은 입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본서에 대한 단편적인 개괄로 끝을 맺게 되었다. 한 예로 다카하시의 『韓語文典』 역시 본서와 동일하게 ‘存在詞’가 설정되어있으나, 야쿠시지의 『文法註釋韓語研究法』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法’의 ‘용언과 조동사 결합에 따른 용언 활용 방법’으로서의 개념은 『韓語文典』과 『文法註釋韓語研究法』에서는 오히려 ‘態’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助動詞’의 설정 역시 『韓語文典』과 『文法註釋韓語研究法』에서는 용언의 결합을 통한 부속어로서의 기술이 아닌 독립된 장(章)을 할애하여 본격적인 품사로 다루고 있으며 용법 역시 ‘희망(希望)’, ‘추측(推測)’, ‘전문’ 등으로 확대된 양상이 나타난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문제점과 한계는 금후의 과제로서 개화기 전반에 걸쳐 간행된 한국어 문법서의 상호 관련성과 내용적 차이를 구명하는 연구로 발전시켜가고자 한다.

## ❖ 참고 문헌

- 고경민, 「근대개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2011 권 2호, 2011.
- 金敏洙, 『國語文法論研究』, 通文館, 1960.
- 김민수·고영근, 『歷代韓國文法大系』 2-32(2판), 도서출판 박이정, 2008.
- 정세환, 「朝鮮語學習書韓語通의言語學的一考察-動詞についての記述を中心に-」, 『일본근대학연구』 27권, 2010.
- 윤영민,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23집, 2015.

- 이준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영한사전의 미시 구조와 국어 어휘 및 번역어 고찰-공동 표제어 대응 어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0호, 2012.
- 이한섭,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일본의 사례」, 『새국어생활』 22권 1호, 2012.
- 최영철 · 허재영,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개항 이후 학제 도입부터 통감시대까지-」, 『語文論集』 第57輯, 2014.
- 한중선, 「開化期 日本語 學習書 小考」, 『일어일문학연구』25, 1994.
- 황호덕, 「개화기 한국의 번역물이 국어에 미친 영향-외국인 선교사들이 본 한국의 근대어」, 『새국어생활』 22권 1호, 2012.
- 小倉進平, 『増訂補注朝鮮語学史』, 刀江書院, 1964.
- 河野六郎, 「前間恭作先生の朝鮮語研究」, 『前間恭作著作集上巻』,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 1974.
- 斎藤明美, 「1909년 간(刊) 『한어통(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12권, 2006.
- 山東功, 「大概以後-学校国文法成立史研究-」, 『言語文化学研究』(日本語日本文学編)2012・3 第7号抜刷, 大阪府立大学人間社会学部, 2012.
- 矢澤真人, 「明治以降日本語の文法用語の成立と品詞分類表」, 『언어 사실과 관점』 제 36집, 2015.

❖ ABSTRACT

## A Study on Korean Textbooks by Japanese in the Korean Enlightenment Period

Yun, Young-Min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 of the decision of the Korean part of speech and the properties of the grammatical items based on 『韓語通』 which was published in 1909. 『韓語通』 is a Korean grammar book written by 前間恭作 who also published 『校訂交隣須知』 in 1904. 『韓語通』 is known for influencing of ‘Otsuki grammar(大槻文法),’ dividing Korean part of speech into eleven. Based on ‘mood’ and ‘voice’ we can assume that 『韓語通』 adopted Otsuki’s grammar. ‘存在詞’ is another clue that 『韓語通』 adopted Yamada’s grammar.

However, 前間恭作 persisted that Korean language is different from Japanese language. This view is different from 寶迫繁勝, 高橋亨, 藥師寺知囀 etc.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nterchange of the two languages in historical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linguistics during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For this purpose, we searched the aspect of the part of speech and analyzed the grammar items. In conclusion, we was able to light on how Japanese scholars approached to Korean grammar system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

### Key Words

Enlightenment period, 『KANGOTSU』, MAEMA KYOSAKU,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grammar items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